



표지사진 : 북한 청진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 열악한 환경으로 발육 상태는 좋지 않지만 환한 웃음만은 잃지 않고 있다.

JTS 통권 59호 2006년 5·6월

펴낸날 : 2006. 5. 1

펴낸이 : 법 료

만든이 : 김경희

도운이 : 서동우, 전성지, 현희련, 최정연
이미경, 정한정, 김애경, 유명규
김순연, 장성호, 김옥희, 김현미
정유석, 박경미, 김영자, 윤경숙
박연옥, 김점희

펴낸터 : (사)한국JTS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 4 나는 앞으로 100년 동안, 동게스와리에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
- 10 일상이 나눔

지금 북한에선

- 12 맑게 갠 하늘을 바라며
- 15 청진의 아이들, 아직도 겨울입니다

필리핀 소식

- 18 JTS 봉사활동을 돌아보며

국내소식

- 20 2006년 기획이벤트1
- 27 두북정토마을 어르신들의 즐거운 봄나들이

후원의 소리

- 29 통일돼지저금통을 찾아서 - 일산 동국대병원

따뜻한 이웃

- 32 시리입고 짜이 마시는 나마스떼 수자타나눔장터, 서울에서 열리다
- 34 수자타나눔장터를 마치고...

활동보고 및 안내

- 37 인도지원사업
북한지원사업
국내사업
- 42 라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결연현황
- 44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 46 신규회원(개인, 단체)명단 · 물품후원
- 48 특별후원금 명단
- 50 CMS 신청안내

나는 앞으로 100년 동안, 동계스와리에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

- 장영주 인도JTS 사무국장과 함께(2) -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전경

이 글은 한국에서 한 달여 기간을 보내고 지난 2월 말에 인도로 돌아간 장영주 인도JTS 사무국장 님과의 인터뷰 글이다. 100년의 세월을 단지 몇 장의 원고로 담아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지난 호에 이어 2회에 걸쳐 실게 되었다. 자, 그럼 동계스와리 100년 후의 모습을 구경하러 가보자.

인도JTS 최고의 작품으로 전 이것을 꼽아요

지난 번에 올해 초 청소년노동학교, 기술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했죠. 이번 기회에 청소년노동학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노동학교 학생들은 15~17세 청소년들로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모아 '청소년 노동학



청소년노동학교 학생들의 모습

교' 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열어 건축기술을 가르쳤어요. 청소년노동학교의 목표는 '기술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 근로자' 를 만드는데 있어요. 직접 실습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나가고 노동자 급료의 절반을 용돈으로 주지요. 용돈도 받고 기술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

어서 호응도가 좋답니다.

15~17세의 나이는 국제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제단체로서 국제규약을 지켜야 하는 저희로서는 그들을 고용하여 도움을 주고 싶어도 미성년자인 그들에게 노동을 시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청소년노동학교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고 나이가 차면 취직을 시켜준답니다.

10학년 정도까지 다닐 수 있는 아이는 그래도 집안형편이 나은 아이들 이예요. 그런데 노동학교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아이들이 그 기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할 사람들이고, 노동학교 아이들은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아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동학교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인도JTS 사업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청소년노동학교' 를 꼽아요.

그리고 수자타기술학교를 우리가 만들게 된 배경도 수자타아카데미의 최초의 졸업생들이 배웠다는 생각에 노동일을 기피하고, 직업도 없이 부모한테 기대고 있으면 사람들이 '배워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런 실망감을 갖게 될까봐 우려가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밥벌이도 못하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수자타아카데미 졸업생들이 기술학교 학생이 된 거예요.

10~12학년까지 공부를 하면 이곳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것인데 마땅한 직업을 갖기가 힘들니까 우리가 기술 교육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지요.

동게스와리의 꿈나무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지금 수자타아카데미 1학년은 200 명이나 되요. 작년에는 165명이 들어 왔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적어 지니까, 전체 아이들의 약 50%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는 우리 학교에 학생수가 많지 않았 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각 마을에 유

치원이 생기고부터 그 아이들이 수자타아카데미에 입학하면서 신입생이 많이 늘었어요.

유치원은 보통 한 마을에 11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정도면 마을의 거의 모든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학년을 올라온다면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수용할 아이들이 무척 많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받아야 해요.

수자타아카데미는 학교가 없는 마을의 하리잔(불가촉천민으로, 동게스와리 마을 전체의 하리잔 비율은 65%, 양민마을 3곳을 빼면 거의 90%가 하리잔이다)들과, 혜택을 못 받는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학교예요. 그러니 학교가 없는 마을의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마을, 양민마을의 아이들은 가능하면 정부학교에 가게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2~3년 내에 찾아야 해요.

최근 지역인구조사를 해보니 1년에 300명 정도 태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수가 5개 학년이 된다면 총 1,500명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30~40명이 교실 1개를 쓰고 있으니까 50개는 돼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 지금 있는 교실이 총 23개(수자타 16개, 분교 7개)니까 앞으로 30여 개의 교실이 더 필요하지요.

지금 유치원 전체 아이들 수는 1,800여 명이고 수자타아카데미까지 합하면 총 학생수가 2,500여 명 정도 되요. 일단 올해는 수자타아카데미에 교실 4개, 분교에 2개의 교실을 더 지을 계획이에요.



동계스와리 100년 후의 모습을 그려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 과정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유치원 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학교에 오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원을 지원하고, 그 후 초등학교 진학은 정부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수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을 퇴치하게 되면 자기 자식은 좀 더 높은 학력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도 좀 더 높은 학력까지, 또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사업의 마무리를 3세대까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일단 초등교육까지가 목표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인도에도 하리잔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부패 때문에 운영이 잘 안돼요. 학교도 마을마다 대부분 있는데, 학교 여는 날이 한 달에 열흘정도 밖에 안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이의제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육을 받고 의식이 깨이면 이 사람들을 함부로 못하게 되죠. 대중의 힘이 교육을 통해 깨어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앞으로 3세대, 약 1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무엇이 좋은지 물어봤더니 '사람이 제정신으로 바르게 생각한다, 생각이 똑바로 선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이 1층, 2층, 3층이 있듯이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2,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아주 적절한 예로 설명을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이미 절실히 느끼고 계신 것이지요.



지바카병원 전경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JTS는 찾아오는 학생과 환자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내어 학교에 오게 하고, 아파도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병원

에 오게 하거나 우리가 직접 가서 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위해 만든 학교, 또 그들을 위해 만든 병원조차도 안 오고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하리잔 아이들이 학교에 오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에 대해 알려주고 마을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학교에 오라고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개근을 하면 상품을 주는데,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도 주어서 학생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냥 농칠 것 같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학교에 와서 받는 혜택들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밥 한 끼는 먹지, 일주일에 한 번 과일도 먹지, 옷과 신발도 다 주지, 학용품도 주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학교가 안정되면서 입학생이 많아지고 출석률도 높아지고, 중도탈락률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 이미 학교에 들어와야 하는 나이를 넘어 학교에서 쑥스러워서 같이 섞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성인 여자들에게 힌디수업을 할 때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문맹퇴치교육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힌디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개월 코스였는데 올해는 6개월 코스로, 책 읽고 쓰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지바카병원 앞에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 중입니다



일반진료와 결핵사업이 중심이었던 지
바카병원에서 지금은 모자보건 차
원에서 신생아 신고를 받고 가
정방문을 해서 신생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분유와 옷을 지원해 주고 있
어요. 작년엔 시작해서 40여
명 했지요.

인도 동게스와리에서는 우리와 다르
게 출산준비라는 게 없어요. 아기 옷이라는 게 아이를 푹푹 말아 쌀 수 있는 포대기정도
예요. 그러니 날씨가 추워지면 아기옷보다도 아기에게 씌워줄 아기모자를 원하는 엄마
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망신고도 받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동네사람들에
게 식사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쓰라고 쌀 20kg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신생아 예방접종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출생인구조사와 신생아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JTS가 신생아부터 초등학교년의 아동까지 모두 지원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동게스와리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전 이미 100
년 후 변화된 그들의 삶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수자타카카데미의 교육사업이 동게스와리의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 이루어
지고 있음을 장영주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12년이 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88년 동안 서서히 변해나갈 동게스와리의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일상이 나눔

유보미 (Megha) | 인도 JTS 자원봉사자

유치원 사무국에서 일하는 기마 시스터와 자그디스푸르 유치원을 찾았다. 한 손에는 가방 가득 담겨있는 개근상을,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연신 신랑 자랑을 하는 옛된 시스터와 흠길을 견노라니 흡사 소풍가는 길인 듯 설렌다. 유치원 앞에는 빠지지 않고 출석한 기특한 아이들이 이팝나무 그늘 아래 줄지어 서 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보니 혹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살짝 떨린다. 연필, 연필깎이, 머리끈... 조심스레 받아 쥐며 “단아바드!(고맙습니다.)” 들릴듯 말듯 수줍게 속삭이는 아이들, 그들의 밝은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나누는 기쁨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수자타아카데미의 식구가 된 지 8개월이 되어간다. 월동 대비 옷 지급, 기근 대비 쌀 지급, 극빈자와 화재피해 가구에 구호품 지급, 사망신고자 쌀 지급, 그리고 수자타아카데미와 유치원생들 개근상 지급. 돌아보니 나눔으로 담뿍 채워진 날들이다. 제3세계 개발활동의 첫 번째 단계가 구호라는 의미를 차지하더라도, 바로 내 주위에서 추위에 떠는 이들, 굶주림에 말라가는 이들, 급작스런 재난에 모든 것을 잃은 이들, 그리고 맨 발로 돌산 넘어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



겨울 옷 나눠주는 날.
한 할머니를 안내하고 있는 필자



가난한 독거노인에게 구호품을 지급하고 있는
아칸차 시스터(정영주 국장)



개근상을 받고 활짝 웃는
자그디스푸르 유치원 아이들



지난 해 말의 일이다. 수자타아카데미 자체적으로 극빈자를 조사하고 먹을거리와 입을 거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조사가 끝난 후, 반나절 동안 여러 마을을 들러야 했기에 덜덜거리는 오토리샤를 타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바빠 달려 극빈가정에 물품을 전달하는 우리는 흡사 구호 기동대 같았다. 그렇게 정신없던 와중에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있었다. 메마른 나뭇가지 보다 더 앙상하고 거친 몸. 어느 흙집 앞,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할머니는 산송장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소변을 지렸는지 바닥은 흥건히 젖어 있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안타까움에 아들에게 질책의 말들을 던져 보지만, 그의 표정에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오히려 연민의 마음이 일었다. 마음마저 결핍시켜 버리는 것이 궁핍인가? 목직한 마음으로 돌아나오는 발걸음도 무거웠지만, 이내 우리의 손은 할머니를 위한 물품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아칸차 시스티(장영주 국장)는 변을 가리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방수가 되는 요를 특수 제작하였고, 조그마한 손수건을 챙겨드리는 살뜰함을 잊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의 체구에 맞는 스웨터와 담요를 찾느라 창고를 거의 반 헤집다시피 했다. 올해 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시는 길에 작은 정성이라도 드릴 수 있어 우리 마음이 따뜻했노라고 말 씀드리고 싶다.

베푸는 이의 정성과 받는 이의 기쁨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의 공간은 바로 수자타아카데미 뒤에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는 창고이다. 전령사의 행복감을 맛보았기에 올해 초 아예 창고지기를 자처했다. 그곳에서 구호품을 준비하노라면 여러 생각들이 스친다. 한국에서 온 옷들이 소인국의 거인 옷 마냥 커 보일 때면 이곳 사람들의 비쩍 마른 체구가 떠올라 안타깝기도 하고, 새 옷 보다도 더 깔끔하게 정돈되어 온 재활용 옷들을 보면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이 느껴져 흐트하기도 하다. 또 양증맞은 인형들을 보면 장난감이 없어 갓난아기에게 돌을 집어 주는 서글픈 모정이 생각나 한숨 짓기도 하고, 어여쁜 악세서리들을 보면 꼬물꼬물 귀여운 우리 학생들이 그려져 주책스레 혼자 웃음 짓기도 한다. 나는 단지 전달자의 역할을 할 뿐인데 감사의 인사를 들으면 지원하신 분들께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이 충만감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상이 나눔이다. 나는 참복 받은 사람이다.

맑게 갠 하늘을 바라며

- 대북 못자리용 비닐 인도요원으로 개성을 방문하다 -

서동우 | 한국JTS 북한지원사업부 간사



JTS에서는 올해 경의선 도로를 통하여 개성으로 못자리용 비닐 100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나는 이번 4월 7일에 대북 못자리용 비닐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도요원으로 개성을 방문하였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임진강역에 도착하자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남측의 출입국사무소에서 간단한 심사를 마친 후 차를 타고 개성으로 가는 톨게이트까지 오니 이미 많은 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는 비닐을 가득 실은 18대의 트럭과 북한에 연탄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가루를 가득 실은 트럭들, 개성의 사천강에 모래를 실으러 가는 트럭들, 식목일을 맞아 개성으로 나무를 심으러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버스 등 수많은 차들이 개성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개성으로 들어가는 차들을 인솔하는 한국군 지프차가 앞장을 서서 가다가 대기하고 있던 북한군 지프차의 인계를 받아 북한측 출입국 관리소 앞까지 가는 데에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문익환 목사님이 그토록 걸어서 건너가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은 가지 못하신 채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며 회색 제복을 입은 북측의 출입국 사무소 관리가 약간은 긴장하고 있는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한참 터 닦는 공사가 진행 중인 개성공단을 지나 10여분 정도 가니 진짜(?) 북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저 멀리 보이는 집 앞 마당에서는 남매로 보이는 두 아이가 내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과 비슷한 놀이를 하며 뛰어놀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처음 본 북한은 남한의 작은 도시에 온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10여분이 지나서 예전에 작은 역이 있었다고 하는 개성의 봉동에 도착했다. 논 넘어 저쪽에는 오늘 갖고 온 비닐을 가지고 가기 위해 북한 전역에서 온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쪽에서는 같이 출발했던 트럭에서 부지런히 비닐들을 내리고 있었다. 내려서 주위를 보니 저 멀리 산 정상까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폐기발을 만들어 일

구고 있었다. 산 정상까지 고랑을 내어 주름진 산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식량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주름진 이마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이 곳 저 곳을 살피며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빼익 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빨간 깃발을 들고 있는 북한 군인이 사진을 찍지 말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다. 순간 처음으로 이곳이 북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정해진 장소 이외의 곳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길 건너에도 주민들이 뒤쪽의 언덕길로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다. 큰 길을 놔두고 왜 뒤쪽의 언덕길로 다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주위를 살펴보는데 저쪽에도 빨간 깃발을 든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깃발을 흔들며 주민들에게 뒷길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북한의 양면을 모두 보는 듯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처음 친절하게 맞아준 북한의 관리들, 큰 절차 없이 한국차량으로 10분 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금방이라도 통일이 올 것 같은 느낌을 받다가도 뒤에서는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뿔뿔하게 바라 볼 수 없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 일행은 두 시간여의 비닐 하역작업을 끝내고 비닐만 그 자리에 내려놓은 채 쫓기듯이 자리를 떠났다. 나가는 길에 논을 갈고 있는 소를 보았는데 갈비뼈가 앙상히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더욱 아파왔다. 봉동에서 개성 시내까지는 30여분이 걸렸다. 가는 길에 비닐로 이랑을 만들어 작물을 키우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주위에 보이는 밭 사이로는 파릇파릇하게 싹이 자라고 있었다. 개성시내로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공동작업을 하러가는 길인지 모두들 어깨에 삽자루를 하나씩 둘러매고 삼삼오오 모여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다. 활기찬 개성의 모습에 조금 전의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오후에는 점심을 마치고 선죽교와 표충사를 방문하고, 고려시대 성군관이었던 고려사 박물관을 다녀온 뒤 다시 돌아왔다.



개성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거리를 다니는 자동차는 개성 차 번호판을 단 한국 차들이고 간단한 절차만 마치면 한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었다. 개성공단에는 한국물건을 파는 북한주민이 있고, 개성사람들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하루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자들이 오고 갔다. 그

러나 나는 이들 이외의 다른 모습들은 차창 밖을 통해서 볼 수 밖에 없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유리창에 막혀 서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손을 내밀 수도 없었다.

다행히 개성에 도착하자 아침에 임진강역에서 내리던 비는 그쳤다. 그러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같이 잔뜩 흐려 있었다. 우리의 현재 모습도 이 만큼인 것 같다. 갈등과 대립의 길은 벗어났지만 아직 서로의 모습을 속까지 보여 주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듯하다. 개성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다시 개성을 가는 날은 잔뜩 흐린 날이 아닌 하늘도 맑게 개이고 서로의 마음도 먹구름에 가리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했으면, 그리고 비닐을 내리고 도망가듯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 주민에게 비닐 하나하나를 건네 주었으면...

청진의 아이들, 아직도 겨울입니다

박지나 | 한국 JTS 해외사업본부장



청진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한 박지나 JTS 해외사업본부장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청진을 방문했습니다. 청진은 북한 내에서도 척박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청진 방문은 농업 협의서 체결 및 고아원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아원에는 약 4,0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아이들을 연령별로 나누어서 육아원(0-5세), 애육원(6-7세), 초등학교(8-10세), 중등학교(11세-16,7세), 중성학원(이혼부모 아이들)에서 각각 생활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청진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진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은 97년 JTS에서 라선의 어린이 영양식 공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매우 작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상황이 조금은 낫다고 합니다. 그

러나 이 곳의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발생된 것이 95년부터이며 그때 이 곳 고아원에 오게 된 아이들이 벌써 17살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육아원, 애육원, 중등학교 이 세 곳을 방문하였고, 이혼한 부모나 미혼모의 아이들, 정신지체 아이들이 모여 있는 중성학원은 거리가 좀 멀어서 5월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태어나서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은 육아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40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중에 젖먹이 아이들은 150명 정도 있었

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이 온다고 깨끗한 새 내복을 입은 아이들은 침대의 난간을 잡고 일어나 난간을 흔들면서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다음 방으로 가서 아이들의 나이를 물어 보니 5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3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아이가 5살이라는 말에 매우 놀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6, 7세 아이들이 주로 살고 있는 애육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7살 먹은 아이들의 키가 우리의 4~5살 어린이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의 책임자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니 옷, 이불, 속옷, 겹옷, 겨울복, 양말, 신발. 특별히 약한 애들을 위해 우유, 모포, 깔개(오줌 많이 싸서)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식용유, 설탕가루, 건포도 등 영양식품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이들을 얼마나 위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방문한 중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곳은 11살부터 17살까지 약 1,10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한 방으로 들어가니 매우 어둡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7~8세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17살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자고 일어서는

데 키가 제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소매는 새까맣게 때에 찢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는지 이곳의 지도원은 아이들과 제가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에게 여기서 졸업하면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체격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면 인민군대나 전문대학으로 가는데 대부분은 사회주의 건설장이나 협동농장, 기업소 등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 성장한데다가 돌봐 줄 부모마저 없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생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곳보다도 특히 더 영양이 부족하여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공 차고 뛰어 놀고 싶는데 운동기구가 부족하고, 중국동포 한명이 신발을 기증했는데 일주일정도 뛰어놀다보니 신발도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발 크기를 모두 조사해서 다음번 방문 때는 신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재봉 교육을 위해 재봉틀도 10대 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손풍금(아코디언), 발풍금, 기타, 드럼이 필요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축구공, 농구공 등 각종 운동기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진의 3월은 아직도 바람이 매우 차갑게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 들판의 풀들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린 것처럼 청진의 아이들도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거센 바람에 몸들을 웅크렸는지 우리의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키도 작고 몸집도 작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유, 영양식이 필요합니다.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불, 겨울옷, 내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필기도구, 운동기구, 피아노, 손풍금 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장판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꼽아 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5월이 되면 다시 청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말에 비료와 비닐을 지원했던 농장을 방문하여 벼가 자라는 모습도 보고, 청진의 고아원도 방문하여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후원물품도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5월이 되면 청진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 것입니다.

JTS 봉사활동을 돌아보며

페이코 자판타 | 필리핀 세비어대학 학생

이 글을 통해 지난 여름까지 활동에서 내가 얻었던 생각과 깨달음, 경험들과 JTS라는 시민 단체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 지금 나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누고자 한다. 3학년 실습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연히 JTS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게 되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장소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라나오델수르, 부키드논 주의 여러 마을, 특히 거머리로 악명 높은 리보나 지역의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알라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JTS가 수행단체인 '정토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환경운동이자 봉사운동이며 평화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의 바탕에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구애됨 없는 단순한 삶이라는 생활 원칙을 갖고 있었다. 짧은 실습 기간 동안 나는 이런 경험을 몸으로 익히게 되었다. 우리가 오버루킹으로 갈 때였다. 우리 인솔자였던 트렐 교수님과 나는 점심으로 각각 바나나 하나와 삶은 계란 하나를 받았다. 그걸 주머니에 넣고, 우린 걸어가는 한 시간 동안 그걸 먹었다. 또 알라원으로 가던 때에는 '점심겸 저녁'을 먹어야 했다. 폭우가 쏟아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밤이 되기 전에 우리는 쉬지도 않고 돌아가기로 했다. 정글 속에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들렸던 그 여행은 내가 겪어본 것 중 가장 조용한 여행이었다. 하루 종일 걸어 정글을 벗어나고 비를 피한 오후 5시쯤이 되어서야 밥을 먹었다. 서서히 나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아도 몇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었다. 학교나 집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볍게 입고, 꼭 필요한 것들만 들고 다니면서 나는 긴 여행 동안 에너지가 절약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말라위시로 가는 여행도 흥미로웠다. 뉴스에서는 그 곳이 위험하다고 나왔다. 그 곳에 가면 세 가지 운명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납치되거나, 팔리거나, 죽거나.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말라위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정신인 아들이라면 다들 그랬겠지만, 난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께서는 라나오델수르와 부키드논 주의 경계에 있는 까난에 간다고 말했다. 까난 역시 여행하기 위험한 장소이긴 마찬가지였지만, 부모님께서는 까난은 괜찮아 하셨다. 왜냐하면 까난은 뉴스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곳에 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곳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다. 사실 말라위에서 나는 이제까지 가본 곳 중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여러 곳을 발견했다. 말라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곳 주민들은 골치 아프고 무섭고 위험한 사람들로 인식되지만,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기쁨은 라나오 호수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주는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다. 단지 내가 그저 집에만 있었다면 말라위시의 멋진 모습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까난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존재한다. 근본주의 기독교, 개신교, 필리핀 교회, 제7일 안식교, 카톨릭, 그리고 큰 나무를 심기는 사람들까지. 그럼에도 그들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서로의 차이점은 뒤로하고 협력할 수 있음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함께 살고 있는 독실한 무슬림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심하게 고립된 오지를 방문하면서 나는 원주민들의 생활 상태를 보았다. 그 경험으로 나는 새로운 시각에 눈뜨게 되었다. 언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나는 도시에 있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왔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실제로 보면서, 나는 그들 또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 어려움에도 그들은 행복했으며, 자신들이 가진 대부분의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편하고, 단순하고, 간단하며, 복잡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만족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연적인 환경에서 산다. 그곳에 있으면서, 내 근심과 고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곤 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JTS가 이제까지 강조해왔던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마음의 수련을 통해, 타인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여 이 사회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와 모순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알리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욱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말이야 쉽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날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배우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내 모든 능력을 다해 할 뿐이다. 때로 우리는 지치고, 우리 행동은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문제는 없다.



2006년 기획이벤트 북한농업지원을 위한 “희망의 비료보내기”



● 우리는 희망의 비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게 위해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토질을 개량하고 생산량 자체를 높여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JTS는 지난 2005년 북한의 온성군에 총 720톤의 비료를 지원하여 식량 5,000톤이 증산되는 큰 수확을 거두었으며, 올해도 북한의 척박한 땅에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한 희망의 비료보내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비료 한 포대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내준

비료로 농사를 짓고, 그 수확량 일부가 어린이의 양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북녘의 농토가 기름지고 수확량도 늘어나 어린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까지 선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고 소박한, 거리에서의 활동이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행사는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꽃피는 봄날 같은 삶의 희망이 될 것으로 알고, 모금통을 든 손길 하나하나가 북녘 농토를 기름지게 하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모두들 즐겁게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주 수요일, 남부터미널역 앞에서 캠페인을 했으며, 인사동에서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토요일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큰 행사로는 명동에서 3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의 행사가 각각 30여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동참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명동에서 진행된 이벤트는 서울정토회 회원들이 평양미인단을 구성하여 '반갑습니다' 노래에 맞추어 율동을 보여 주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평범한 남한의 주부들로 구성된



평양미인단은 흰저고리에 검정치마로 만들어진 한복을 입고, 북녘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신명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거리에서 흔쾌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함에 보답하는 작은 답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배종옥님과 노희경작가 등이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모임인 길벗 회원들이 동참하여 더욱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빨간 하트로 만들어진 JTS꽃말과 모금통을 들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일일이 비료보내기 행사를 설명하며 모금을 하는 모습에서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습니다.

대학생정토회에서도 비료를 보내서 북녘땅에 기름진 '흙이 되자' 라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밀짚모자를 준비해 와서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도 희망의 비료를 전달하듯이

빨간모금통들을 안고 뛰어다녔고, 울산

성남동에서도 황사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여러 차례 모금 활동을 했

습니다. 광주에서는 충정로에서,

마산에서는 창동에서 한판 잔치

처럼 북한 동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북한 동포에 대한 마음이 점차 더

열림을 느꼈습니다. 거리에서 이벤트를 하는 동

안 북녘 동포들의 농사가 잘 되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서 느껴져 더욱 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 JTS는 희망의 비료보내기와 함께 청진지역 고아원, 양로원 등에 이불, 의약품, 의류, 식품류, 분유 등을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 ☎02-587-8753, 587-8756)

● 북한 청진에 2006년 첫 비료 지원을 하다

3월 28일 부산항 3부두에서 북한 청진에 보내는 복합비료 450t과 하우스용 비닐 30만㎡의 선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비료, 비닐은 모두 27개의 컨테이너에 실려 28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30일 라진항에 도착한 후, 31일에 하역작업을 시작해서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해외동포영접처에서 직접 인수하여 청진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이번 농자재 지원은 2006년 북한 농업지원의 첫걸음으로 북한의 농사가 비료, 비닐 등의 지원을 통해 풍년이 들어 북녘동포들의 밥상이 풍성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JTS의 농업지원은 단순지원을 넘어서 개발지원의 일환으로 비료,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해서 농산물이 증산되면 지원한 내용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입니다.

이번 청진에 지원되는 비료, 비닐은 총 900정보에 해당되는 지원량으로 수확 후 1정보당 쌀 1톤으로 되돌려 받기로 합의했고, 되돌려 받은 쌀은 청진지역의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채소의 경우는 JTS가 지원하는 청진 7개 학원(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성학원, 농아원, 양로원)에 1년동안 김치와 채소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청진지역 지원에 이어 라선에 비료 250톤, 비닐박막 20만㎡, 황해도 지역에 비료 300톤, 비닐박막 100만㎡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라선과 황해도 지역의 농업지원도 이처럼 지원량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서 그 지역의 탁아·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평양미인단' 되어 거리에 서다

김영자 | 서울정토회 자원봉사자



흰 저고리 검정 치마.
한 번도 입어 본 적이 없는 '평양 미인단' 의 옷이었습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안무를 만들면서도 깔깔깔, 연습을 하면서도 깔깔깔,
화장을 하면서도 환한 꽃분홍색으로 입술을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드디어 명동 거리에 '평양미인단' 이 소개되었고, 노래는
'반갑습네다' 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네
다.” 에 맞춘 율동이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틀리기도 했
지만 하면 할수록 신나고, 마음만은 프로가수였습니다.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율동 중간에
한 분 한 분께 모금함을 내밀면서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많이 힘들다고...

굶주리는 아이들과 비료가 없어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들,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아파도 마음대로 아플 수가 없는 사람들...
안타까운 이웃을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살리기에 동참하기를,
우리는 한 민족임을, 우리는 형제임을, 조건 없는 도움을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행사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했던 '평양미인단' 자원봉사자님들...
추운데 고생하셨구요.
같이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 희망의 비료가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오길

우경자 | 부산정토회 자원봉사자



지난 3월28일,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한 날씨에 부산항 제3부두에서 있었던 북한 비료보내기 선적식에 참가했었다. 북한 청진에 지원될 비료와 비닐을 보면서 북한 돕기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작년에 JTS에서 진행했던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 캠페인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때 여러 가지 북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아, 북한 동포가 지금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내 문제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구나. 저 현실, 저 고통이 바로 내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리 캠페인 현장에서는 북한 돕기 캠페인에 대한 거친 거부반응을 볼 때 당황하기 보다는 그 분들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북한 돕기에 쉽게 호응하지 못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사연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분들의 닫힌

마음을 녹이기 위해 참회의 기도를 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북한 관련 영상물이나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분단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통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통일 이후의 엄청난 사회문제들을 걱정하면서 통일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작은 실천이 통일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후원하는 천 원, 만 원의 작은 돈이 다음 세대에 십만원, 백만원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북한 돕기에 반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니 지금 JTS에서 하는 모든 북한 관련 사업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 내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150원이면 북한 어린이에게 한 끼 영양식을...’

‘1000원이면 일주일 양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가슴으로 호소했듯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비료보내기’ 캠페인이나 북한 건설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희망을 본다.

스스럼없이 북한 돕기와 북한 건설에 관심을 가져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두북정토마을 어르신들의 즐거운 봄나들이

김애자 | 마산정토회 자원봉사자



지난 4월 8일 조용하던 두북정토마을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두북노인잔치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11월에 이어 또 다시 치러지는 이번 잔치는 작년보다 더 풍부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일정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전 8시에 두북정토마을을 출발해서 경주 시내를 거쳐

대구 동화사를 방문한 후, 대구정토회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삼릉에 있는 온천에 들러 온천욕을 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아침 8시,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예상보다 많이 참가하셔서 100명 이상이 버스 두 대와 자가용 5대로 움직였습니다. 경주 김유신 장군묘로 가는 벚꽃 길은 너무나 멋지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보너스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허리가 굽으시고 다리가 불편하셔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밝게 웃으시며 즐겁게 동참하셨습니다.



경주를 지나 대구 동화사에 도착해서는 동화사 대웅전과 경내를 관람하시고 통일대불을 참배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천왕상이나 대웅전, 통일대불 앞에서 싹지 돈을 꺼내 보시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동화사 경내를 거닐며 선조들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분들이 있음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동화사를 떠나 대구정토회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정토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드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계속 인사를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노래자랑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잘 부르시던 노래도 부르시며 다들 젊은 시절로 돌아가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토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삼릉에 있는 온천에 들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등도 밀어드리고 살피드리니

“우리 며느리도 잘 한다.” 하시며 자식 칭찬을 하십니다.

행사가 끝나고 멀리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보낸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이 날은 대구정토회 뿐 아니라 울산, 해운대, 마산에 계신 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JTS가 두북정토마을(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복지사업이라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식이 있어도 모두 도시로 떠나 외롭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께 그저 옆에서 조용한 친구가 되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날 하루라도 그 분들이 정말 즐거우셨다면 좋겠습니다.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2차 분양받아 모금한 돼지저금통들

통일돼지저금통을 찾아서

- 일산 동국대병원 -

황사도 걷히고 화창하기 이를 데 없는 아름다운 봄날, 소식지팀은 JTS 물품담당자이신 박연옥님과 함께 일산에 있는 동국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JTS에서 북한지원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통일돼지저금통'을 분양 받아 모금 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있는 원무과의 유주형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교롭게 병원 감사 기간이라 더욱 바쁜 시기였지만 그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신 유주형님께 감사드립니다.

통일돼지저금통 모금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병원은 작년 6월에 개원했으니 약 10개월 정도 되었고 저는 개원 멤버로 이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병원이 개원하면 많은 단체에서 후원 요청을 하러 찾아옵니다. 저희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원 초기에 빨리 후원 단체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평소 JTS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들보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잘 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그 때가 JTS에서 한창 통일돼지저금통을 분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측에 허락을 받아 통일돼지저금통을 분양 받고 싶다는 공문을 JTS에 보내 모금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분양 받으셨나요?

1차 분양은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18,210원이 모금된 저금통을 JTS에 전달했고요, 이번 것은 두 번째 분양 받은 것으로 총 8개입니다. 어제 택배로 새 저금통이 왔

으니 3차 분양도 신규로 받은 것이 되겠네요.

통일돼지저금통은 어떻게 모금되고 있나요 ?

수납 창구에 저금통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창구는 1,2,3층 세 곳에 있고 응급실에도 수납 창구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다른 고객분들이 수납하고 남은 돈을 넣어 주십니다. 예전에 저금통이 없을 때에는 수납하는 직원에게 잔돈은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잔돈은 통일돼지저금통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모금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건가요?

병원이 개원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생각보다는 모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앞으로도 모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돈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만약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일어난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퇴근할 때 저금통을 책상에 넣어두라고 당부하곤 합니다. 저금통을 JTS에 전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직접 담당자분이 오셔서 수거해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을 제 3자에게 맡겨 보낸다는 게 마음이 놓이질 않더군요. 더구나 개인적인 돈도 아니고 복환의 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돈인데 잘못되더라도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병원 위치가 서울로부터 거리가 좀 멀다 보니 오실 때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모금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사소한 것인데요. 이번에 새로 온 저금통 색깔이 빨강색이더라고요. 그런데 빨강색은 수납창고에 비치할 때 좀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전의 초록색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요.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 개개인에게 직접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분들이 저금통을 채워 오시면 저희가 모아 JTS에 전달하는 거지요. 이것도 물론 수납창구에서 진



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납직원들이 바쁠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저금통에 돈을 넣으시는 분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저금통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은 북한 지원이라는 취지가 때로는 거부감을 일으킬 때가 있더군요.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남한에도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까지 신경 써야 옳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보통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통일돼지저금통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넣어 주시는 경우도 다는 저금통 뒤에 놓여있는 큰 글자의 팸플릿이나 모델 사진을 보고 막연하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건가 보다 하는 개념으로 넣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거나 국한된 명칭을 쓰는 것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합니다. 좀 더 다가가기 쉽고 거부감이 없는 내용으로요. 모금된 금액이 북한지원에 쓰이더라도 저금통 이름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JTS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텐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모금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돼지저금통 모금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옆에서 이 정도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죠. 감사합니다.



수납창구에 비치된 통일돼지저금통의 모습



인터뷰를 해주신 동국대병원 원무과의 유주영님이 수납창구 직원과 함께

사리 입고 짜이 마시는 나마스떼 수자타나눔장터, 서울에서 열리다

지난 3월 31일 서초동의 거리 한 모퉁이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이 날 거리에서는 인도 전통 차 짜이를 마시고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까지 입어 볼 수 있는 이색 장터가 열렸는데, 마치 인도의 현지 장터를 옮겨 놓은 듯 했습니다.

인도의 수자타아카데미 지원을 위해 JTS 주최로 개설된 이번 장터는 판매 물품 모두가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장터를 통해 수자타아카데미 어린이들을 위한 수익금 마련과 시민들에게 인도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수자타 나눔 장터에서는 재활용 의류, 재활용 가정 소품, 인도 물품, 인도 짜이 등이 판매되었으며, 인도 사리 입어 보기, 즉석 사진 찍기, 문화 행사, JTS사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도움의 손길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 속의 작은 장터 모습을 부스별로 담아 보았습니다.



인도향기 가득한 집

이 물품들은 모두 인도에서 직접 구매해온 물건들로 특히 목도리와 생활용품 등이 인기였습니다.

작은 짜이집

인도식 밀크 Tea라 할 수 있는 짜이는 냄비에 물과 차잎, 우유를 넣어 끓이는데 초보자들이 짜이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짜이 만들기 실습을 통해 실력을 키운 자원 봉사자들은 이 날 인도의 깊은 맛도 살리면서 더욱 우리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 주어 이날 장터의 인기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소박한 부활

많은 분들이 신발, 가방, 그릇, 전등 등 예쁜 소품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소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격을 정하고 흥정을 하는 모습이 너무 정겨웠습니다.

사리 입은 여인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어보는 코너가 있어 판매하는 자원 봉사자들과 시민들 모두 사리를 입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인도의 한 시장을 옮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대 품에 다시 한번

옷가게 옷들도 참으로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이 무상으로 지원 받은 옷들을 깨끗하게 다림질하여 종류 별로 진열해 놓으니 모두 새 옷 같아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JTS

JTS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장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틀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JTS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자타나눔장터를 마치고...

김점희 | 서울정토회 자원봉사자



장터에서 물품을 팔고 있는 김점희님의 모습

평소 가볍게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늘 되새기면서도 너무나도 무겁게 “수자타나눔장터”라는 새로운 일감을 맡게 되었다. 인도의 서북쪽 가야시 근교 동게스와리에서 대대로 구걸하고 살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세워진 수자타아카데미를 지원하고, 한편으론 국내에 JTS를 알리는 기회로 “수자타나눔장터”라는 행사가 기획된 것이다.

장터... 나는 가끔 거리에서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 등이 기획한 장터를 보아 왔었고, 그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었지만 그저 열렸구나, 물건은 싸게 사겠구나,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 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장터를 직접 맡아서 해 보겠다고

말을 한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부담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너무 긴장했는지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 쪽에 점점 높이 쌓이는 지원 물품들을 보면서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만 아팠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자원 봉사자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홍보물을 만들고 가격표를 붙이고 옷을 다리고 짜이 만들기 실습도 하면서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드디어 3월31일 아침 건강보험관리평가원 앞에서 장이 시작되었다. 책상들이 놓여지고, “수자타 나눔장터”라는 플랭카드가 걸리고, JTS를 알리는 홍보판넬과 음향 TV가 설치되고, 인도 어린이들의 사진이 진열되고, 인도 물품과 인도 짜이, 기증받은 소품들, 재활용의류들이 진열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자원 봉사자들은 물건들을 나르느라 분주했다.

장이 열리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여서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알차게 이곳 서초구에 JTS를 알릴 수 있을 것인지,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으며 마치 시험대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날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호응과 더불어 짧은 시간에 그들의 손에는 물건들이 들려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너나 할 것 없이 홍보물을 배포했다.

“150원에 한 끼를 먹고 1000원이면 4인 가족이 먹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인도 불가촉 천민 지역에 있는 ‘수자타아카데미’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당신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JTS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물건 값을 깎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바램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 같아 고마웠다. 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건강보험관리평가원 원장님께서 후원금을 들고 찾아 오셨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을 보았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보내준 정성은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이



건강보험관리평가원 원장님과 JTS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들을 구한 것이다. 거리 모금과는 사뭇 다른 반응들이 있어서 좋았고, JTS가 어려운 제3세계를 돕는 단체라는 것을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처음 해본 장터라 더러는 미숙하고 때론 지치기도 했었다.

“수자타나눔장터”는 내 인생에 있어 너무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주위에서도 “수자타나눔장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도 했다. “수자타나눔장터”는 1,410,000원의 수익금을 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수자타나눔장터”를 빛내주셨다. 많이 부족했던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JTS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수자타나눔장터의 판매물품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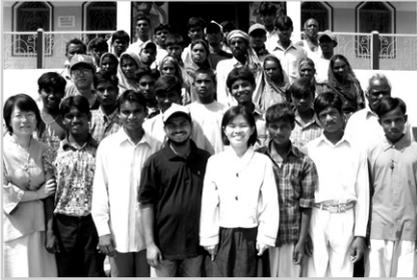
모집물품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활용품으로 의류, 가정용품 등과 인도를 느낄 수 있는 인도물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무상으로 지원 받으며 판매수익금은 전액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정토회 복지사업부(☎02-587-8753)

인도지원사업

● 청소년 노동학교 입학식



3월 7일 청소년 노동학교 5기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술을 터득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성실하게 수학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학부모와의 사진촬영도 진행되었다.

● 수자타아카데미, 수학여행 다녀오다



파트나 수학여행시 골가르(쌀창고) 앞에서

3월 11일 3, 4학년 학생들이 라즈길과 나라다로 수학 여행을 가서 다보산의 케이블카도 타고 영취산, 죽림정사, 나라다대학, 박물관을 둘러보며 즐거운 놀이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4월 1일 파트나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5, 6학년 아이들은 동물원, 천문대를 둘러보면서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을 하였다.

● 수자타아카데미 3층 증축공사 시작



매년 늘어나는 학생들을 위하여 수자타아카데미 3층에 교실 4칸, 화장실 2칸 증축을 위한 공사가 2월 22일부터 시작되어 벽체 조적공사가 절반정도 진행되었다.

● 기숙사 기초공사 시작

3월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모터가 지원하는 기숙사 기초공사가 시작되어 부지측량을 마치고 땅파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아마르푸르유치원 공사 시작



아마르푸르 유치원 부지를 제공해 주신 분들

3월 27일 아마르푸르 마을에 유치원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마을은 주민의 100%가 하리잔이고 이들 모두가 문맹이어서 2005년부터 수자타아카데미 리더들이 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다. 공사 초기에는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가 저

조했는데, 현재는 매일 마을 주민 5~6명이 번갈아가면서 기술자 1명과 청소년노동학교 2학년 3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돕고 있다.

● **지바카병원 결핵 파트에 김원자님 파견**

3월 2일 김원자 (인도이름 네하, '사랑'의 뜻)님이 인도JTS에 파견되어 병원의 결핵 파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안정적인고 체계적인 결핵사업이 예상되고 있다.

적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선적식은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등 언론에서 취재를 나왔으며 연합TV뉴스와 7여 곳의 언론에 북한지원 소식이 보도되었다.

● **대북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합동사업으로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였다. 북민협 회원단체인 JTS에서는 3월 31일과 4월 5일 두차례에 걸쳐 총 100만㎡의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였다. 이번엔 지원한 비닐은 경의선 육로를 통하여 개성으로 운반하여 개성에서 각 지역으로 배분되었다. JTS의 서동우 간사는 4월 7일 비닐지원 인도요원으로 개성을 방문하여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 하였다.

북한지원사업

● **청진시에 농업지원을 하다**



지난 3월 28일 부산항을 통하여 함경북도 청진시에 복합비료 450톤과 못자리용 비닐 30만㎡ 지원하였다. 이번엔 지원한 물품은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협동농장과 청진시 라남구역 봉암협동농장의 900정보의 벼농사와 옥수수 농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JTS는 청진시 인민위원회와 사업합의를 하여, 가을에 수확한 뒤 정보당 1톤씩의 곡물을 돌려받아 청진시 고아원 및 취약계층의 영양식으로 다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8일 부산항 중앙부두에서는 김경희 사무국장을 비롯한 15여명의 부산지역 회원이 함께 선

● **라선시에 농업지원을 하다**

4월 11일 JTS에서는 라선시 협동농장에 복합비료 250톤과 못자리용 비닐 20만㎡를 지원하였다. 부산항을 통하여 지원한 물자는 라선시의 협동농장으로 보내져 사용될 예정이며, 가을에 수확 후 생산물 중 300톤을 곡물로 돌려받아 라선시 어린이 영양식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 **라선시병원에 의료가구 및 의약품 지원하다**

5월 2일 JTS에서는 라선시 진료소 지원을 위한 의료장비를 보낸다. 이번엔 보내는 의료장비는 X-레이와 초음파 기계, 심전도, 부인용 검진대로 라선시 승리화학 종합진료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번엔 보내는 의료기기는 지난 12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이 라선시 13개 진료소를 직접 답사한 뒤 필요한 의료기기를 조사하여 합의한 부분이다. 이후에도 기초의약품과 기초 진료기기 등 진료에 필요한 의료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 북한 청진과 라선 다녀오다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은 3월17일부터 21일까지 북한 청진을 방문, 경성 염분협동농장과 라남구역 봉암협동농장, 함경북도 육아원과 애육원, 중등학원 등을 답사하고 돌아왔다. 이번 청진 방문은 농장과 고아원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사업협의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함경북도 안의 2개 협동농장에 비료와 비닐박막, 농약들을 무상 지원하여 나온 생산분에서 1정보당 1톤(염분협동농장 쌀 250정보, 강냉이 150정보 / 봉암협동농장 쌀 100정보, 강냉이 100정보)씩을 JTS에 넘겨주고, JTS는 넘겨받은 생산물 전량을 함경북도 안의 학원 원아들에게 무상지원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함경북도 인민위원회·해외동포사업처와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3월28일 청진으로 비료 450톤, 비닐박막 30만㎡를 지원했고 추가로 농약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라남구역 봉암협동농장은 남새(채소)면적 150정보에 해당하는 비료를 JTS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생산한 남새를 도 안의 7개 학원(육아원, 애육원, 중성학원, 양로원, 농아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에 1년 동안 김장김치, 채소 등을 공급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라선은 4월3일부터 4월5일까지 2박3일간 방문

했으며 승리화학종합진료소, 남산유치원, 청평유치원 등을 돌아보고 왔다. 의료장비와 의약품 지원을 위한 추가 답사 및 농사지원에 따른 합의를 보기 위한 것이 이번 라선 방문의 목적이었으며, JTS로부터 650정보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용 비료와 비닐박막 20만㎡를 무상지원 받아서 생산한 농업생산물 흰쌀 300톤을 어린이 영양가루 원료로 11월 말까지 어린이 영양식 가공공장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라선시 인민위원회와 하고, 라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라선시 해외사업처장, 해외사업처 지도위원의 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4월 11일 JTS에서는 라선시 협동농장에 복합비료 250톤과 못자리용 비닐 20만㎡를 지원했고, 추가로 농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긴급구호 차원을 넘어 개발구호로 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작은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사업

● 인도 JTS 정영주사무국장 불교방송에 나오다



2월21일(화) 불교방송에서 오후5시10분~6시에 이해숙교수님이 진행하는 '무명을 밝히고' 프로

그럼에 인도JTS 장영주 사무국장이 출연하여 수자타아카데미와 지바카병원, 마을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 **대학생정토회와 함께 한 필리핀 산사태 피해지원을 위한 '노란 우산 캠페인'**



지난 2월23일(목) 폭우와 산사태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실종된 필리핀 레이테섬의 피해를 돕기 위해 대학생정토회(지도법사 유수스님)가 한국JTS와 함께 긴급모금 운동 '노란우산 캠페인'을 벌였다. 대학생정토회 회원 30명은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명동 우리는 행 앞에서 노란우산을 들고 모금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필리핀 주민들과 평화캠프를 진행하는 등, 매년 방학기간 현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필리핀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 **육군 제 5685부대 돌격부대 다시 방문**
 지난 3월4일(토) JTS 김경희국장님과 인도에서 온 뿌리아카지(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는 여주에 있는 육군 제5685 돌격부대를 찾아 장병들이 빈그릇 운동과 잔반 벌금으로 모은 성금 430,000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인도 어린이를 위한 특별음식을 마련해 주었던 돌격부대는 뿌리

양카지를 통해 인도 현지의 소식을 듣고 앞으로의 꾸준한 지원을 약속해 주었다.

● **전국복지회의**

4월 14일(금) 전국에서 JTS활동을 하고 있는 정토회 복지사업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정토회에서 가진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인도JTS의 마을개발 파트를 맡고 있는 김재령님이 오셔서 인도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어 참가한 모든 이들이 인도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뜻있는 자리였다.

● **북한농업지원 현황보고회**

서울정토회에서 4월18일(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북한농업지원 현황보고회가 있었다. JTS가 98년 북한지역농업지원을 시작할 때부터 맡아 왔던 담당자에게 직접 진행되어 온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 서울지역에서 북한 돕기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사리입고 짜이만들기**



3월 28일 서울정토회에서는 인도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했다. 인도에서 활동을 했던 이수진

님을 모시고 인도 전통차인 짜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 입는 법도 배웠다. 30여분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짜이도 마시고 사리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의 문화를 체험하며 수자타어린이들을 함께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수자타나눔장터에서 짜이도 만들고 사리도 입혀 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이날 행사를 더욱 의미있게 했다.

● 수자타나눔장터



3월 31일 서초동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수자타나눔장터를 열었다. JTS를 알리고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진행된 장터는 짧은 시간에 무상으로 지원받은 대부분의 물품이 판매되었다. 64분이 물품을 기증해 주셨으며 총 판매수익금은 1,410,000원이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다음 장날은 5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 통일대지저금통분양

지난해에 이어 서울 송파구 풍성초등학교(교장 최광규)에 저금통 600개가 분양되었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광동중학교(교장 이학송)에서도 권준희 선생님의 수업으로 저금통 100개가 분양되었다.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정광중·고등학교(교장 강춘식)에 2,200개가 분양되었으며, 마산정토회에서는 통일교육을 통한 저금통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동전모으기에 동참해 주신 여러 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최양희부장 정토회 출판국으로 부서이동



7년 동안 JTS의 회원관리·홍보·총무 일을 맡아 일해 온 최양희 총무부장이 정토회 출판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항상 따스한 관심 보여주시던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라진·원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3월 31일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3월 31일 현재



* 회색으로 채워진 곳은 현재 지정기탁자가 부족한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단체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새롭게 후원해 주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 광주

김민수 6,740 김창수 34,820 다산한의원 17,140 서울대림사우나 37,760 엄창수 36,510 유승영 346,650 윤지성 15,780 임형근 18,250

● 대구

강민수 8,080 고금례 11,130 공정훈 22,400 김성훈 26,550 무명 20,680 무명 5,140 박미옥 22,940 박수원 18,700 박현진 20,140 박희래 28,000 사대부고 10개 275,790(1-1정성훈 56,760 1-2유찬욱외 6,720 1-3옥준호외 23,510 1-4오승용외 10,890 1-7사대부고 17,330 1-8한세영외 39,110 2학년일동 26,200 김수정의 27,630 사대부고 17,330 사대부고무명 50,310 이성경 18,330 이정수 18,350 장선욱 37,550 전정임 6,890 지혜화 4,970 채성기 24,150 청안사 9개 230,690(김나윤 17,580 김동륜 15,720 김민서(2) 101,840 김형준 4,820 무명 51,170 신형준 2,290 안병부 22,050 황주성 15,220) 크리스토퍼 224,090 효광 23,120

● 대전

김남식 32,820 김태풍 26,930 무명 10,100 무명 13,900 신한의원 38,190 이금봉 15,000 이병현 7,470 이승철 8,680

● 동래

강후원 29,200 구현우 8,820 김여옥 38,970 김현우 39,140 동상초등학교 14개 133,880(권오성 3,780 김달현 1,630 동상초5-1 7,360 동상초5-1 20,100 동상초5-1 23,400 박준형 890 이다솜 13,650 이동훈 10,120 이서희 1,620 이화경 17,700 임대현 7,800 주현우 4,220 최설희 2,610 s.y.j 19,000) 류수재 4,260 무명 21,860 무명 16,660 무명 9,260 무명 18,500 무명 19,370 무명 15,830 무명 4,650 무명 2,930 박귀련 19,480 박분남 14,010 법문주 156,730 법문주 137,480 법문주 103,850 법문주 67,320 선주향 13,200 안혜원 16,640 안혜원 11,900 안혜원 9,230 오은선 7,740 이남선 17,210 이영금 16,350 이용직 30,720 이은경 13,210 이해일 9,810 이향순 24,850 최현주 12,890

● 마산

고경녀 13,490 구민희 7,510 무명 5,000 박미경(김미화) 3,530 서현주 5,240 이명세 8,980 이승현 24,280 정영숙 25,490 정원희 48,000 황대진 24,740

● 서울

강여경 1,340 강영희 18,640 강형철 18,060 강희경 18,610 권광택 54,710 권오삼 36,110 김경옥 24,550 김기왕 10,840 김무로 54,810 김무로 50,560 김성훈 29,970 김세준 31,070 김순호 27,310 김애실 19,850 김애자정각식 23,890 김연미 13,020 김영자15,610 김영자 19,480 김유진 21,980 김재석 6,170 김재석 6,660 김재훈 23,650 김정숙28,970 김중현 26,270 김주철 34,580 김주철 53,510 김지향 13,830 김한옥 17,000 대원문구 11,660 무명 15,130 무명 9,150 무명 15,460 무명 28,120 무명 8,580 무명 30,120 무명 29,080 무명 4,480 무명 18,870 무명 51,000 무명 2,790 무명 41,030 무명 33,650 무명 27,000 무명 21,820 무명 26,090 무명 32,750 무명 14,180 무명 13,700 무명19,900 무명(문경) 1,600 문경정도 18,560 문형은 49,300 박명기 8,920 박병화 8,650 박상희 75,630 박수지 9,020 박은경 10,990 봉금례 1,120 봉금례 9,740 선우스님 84,770 송우형 15,660 수원초등학교 16,100 신명진 24,670 심유현 29,400 양명숙 16,680 양정훈23,900 엄덕인 14,650 엄지인 11,120 여지현 11,080 오이동 5,810 오이동 13,710 이광민 12,860 이상노 37,620 이순섭,이기갑 23,000 이유진 7,860 이정순 13,760 이정자9,270 이현규 41,250 임성순 4,560 임은희 31,610 임진규 9,980 임화자 3,520 장성호 38,110 정우현 21,720 정윤희 30,000 정윤희 23,860 정인숙 21,670 정정임 3,420 정정화 3,140 정희경 5,710 정희연 18,580 조선경 37,920 조수월 15,240 주미자 4,260 주초희 11,750 직지사금강회 125,840 창경초등학교6-12 87,070 채영민 270 최선미 5,600 최윤역 80,140 최윤희17,700 최은석 26,510 최재훈 42,690 최정연 28,290 채해숙 26,800 최희선 25,260 탁원재 18,320 하늘약국 13,500 한혜자 45,100 허재량 11,020 홍은배 9,210 황숙현 64,610 LG마트 27,080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 울산

구영초등학교 1-5 23개 198,050(강정훈 3,470 구영초등1-5 14,820 김경태 4,610 김도현 2,340 김동재 12,130 김승한 5,240 김지원 11,780 김한빛 1,030 김해나 7,060 박준휘 28,380 안수빈 850 영진,수진,성진,채연,예지 23,570 유자현 18,240 이영진 3,780 이종형 2,360 이채연 2,600 정예지 2,070 정유현 3,270 정훈,경태,세현,민정,다희,경빈 7,770 조준희 24,730 최보영 8,160 최수빈 4,260 최지윤 5,530 권형우 26,060 김민희 60,230 김병삼 11,160 김연수 11,660 김영주 56,750 김용주 99,560 김일윤 26,670 무명 994 윤정희50,000 윤호성 28,320 이해경 36,080 최예진 8,050 최옥자 11,530 한영태 20,150

● 제주

고진수 28,650 허귀인 24,850

● 청주

권소희 17,850 김장식 16,210 박규순 11,070 박준자,기홍진 62,710 유명수 84,710 이수연 15,090 이해진 10,420

● 해운대

강소담 23,760 김지문 46,280 무명 24,160 무명 36,950 무명 5,920 무명 10,940 반여중1-6반 8,220 서인탁 52,630 윤아 18,720 전영복 24,050 전옥자 12,040 전은주 29,590 정채현 42,880 최문숙 44,100 추병우 15,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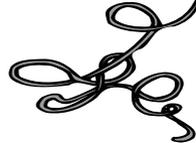
● LA정도회

LA정도회 604,045(621\$)

통일돼지저금통 이름이 바뀝니다

통일돼지저금통이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북한지원을 위해 쓰이던 돼지저금통이 앞으로는 인도, 북한 및 제 3세계 어린이 돕기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금통 이름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돼지저금통 모금에 동참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 서울정도회 복지사업부 (☎02-587-8753)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거리모금 현황

대구 177,660 대전 782,120 마산 3,185,810 서울 1,706,570
울산 55,000 청주 128,460 해운대 596,620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인도후원회원

P0011087 강 미영
 P0016162 강 주숙
 P0015932 강 인숙
 P0016164 강 준우
 P0002675 고길순
 P0016169 권영자
 P0002699 권영미
 P0015980 권영애
 P0016171 김경애
 P0003930 김경순
 P0016419 김대희
 P0002302 김도형
 P0014391 김동연
 P0015986 김민정
 P0015905 김민정
 P0016274 김분화
 P0015454 김성자
 P0016256 김수숙
 P0005075 김수숙
 P0002741 김순해
 P0016061 김신희
 P0015163 김신영
 P0016016 김예영
 P0016210 김은영
 P0007745 김인호
 P0016103 김재훈
 P0016006 김정란
 P0015925 김정호
 P0015057 김정화
 P0016105 김종남
 P0015060 김주철
 P0015934 김치훈
 P0016756 김태형
 P0016350 김해석
 P0015933 김현미
 P0014043 김호상
 P0016221 김홍금
 P0015937 김희라
 P0014563 나수나
 P0016448 노수경
 P0007122 노순란
 P0013400 도인숙
 P0016058 류호대
 P0015663 문병익
 P0016430 민병두
 P0016139 민보혜
 P0003613 박미혜
 P0016410 박병선
 P0015395 박병일

P0015411 박영미
 P0014730 박영영
 P0016409 박영숙
 P0008500 박영은
 P0008510 박은주
 P0015985 박정순
 P0014461 박종욱
 P0016161 박수영
 P0014697 배낙형
 S0016761 불교서원
 P0016358 뿌리앙리
 P0016776 서동식
 P0016433 손동호
 P0016167 손석승
 P0016408 송원현
 P0013959 송동현
 P0014518 신명순
 P0012562 심태숙
 P0003787 안순자
 P0010288 안규진
 P0016116 안영신
 P0015614 여정아
 P0016351 오차연
 P0015146 오경환
 P0016384 우상이
 P0015434 유숙주
 P0016437 유은은
 P0016434 윤일건
 P0016117 이건주
 P0016387 이정국
 P0010919 이정분
 P0015400 이경숙
 P0016747 이근혁
 P0016678 이동한
 P0003819 이명숙
 P0015852 이명순
 P0016085 이승우
 P0015886 이승현
 P0012999 이승희
 P0016104 이승숙
 P0006492 이일진
 P0008269 이종진
 P0016135 이영애
 P0011400 이혜향
 P0016127 임형민
 P0015967 장연미
 P0015912 장숙연
 P0010743 장준혜
 P0007406 장영진
 P0014463 장혜진

북한어린이결연

P0015312 양선미
 P0011196 강운규
 P0016122 회광사
 P0013920 한정희
 P0013922 한서운
 P0015276 최재운
 P0014254 조은희
 P0015278 조범석
 P0015913 홍수진
 P0015927 장문임
 P0015977 유현숙
 P0015958 조경빈
 P0016007 최병섭
 P0016104 이신숙
 P0007122 노순란
 P0016171 김경애
 P0016086 함문수
 P0015259 광철민
 P0015163 김영신
 P0014276 이관희
 P0016127 임현근
 P0016170 정선일
 P0012308 조육환
 P0016413 최경욱
 P0016207 김동수
 P0016221 이홍대
 P0016161 박태수

P0004447 배건영
 P0009530 손태욱
 P0015770 김재병
 P0016410 박병영
 P0015309 황인영
 P0008454 강미경
 P0004419 팽종연
 P0014518 신명순
 P0015929 박영훈
 P0015926 오정상
 P0015904 김상영
 P0015997 박명민
 P0016162 강영주
 P0016139 양보혜
 P0005292 민계숙
 P0014251 윤슬기
 P0016244 이재섭
 P0016219 정안사
 P0005204 창세원
 P0016237 강광열
 P0016346 백분화
 P0016274 김노영
 P0016266 김재영
 P0012382 반주영
 P0016381 박희정
 P0015411 박희영
 P0016222 박희승
 P0016741 문승희
 P0016367 이경희
 P0010329 김영순
 P0009775 김영순
 P0016546 새벽을여는모임
 P0016272 손은숙
 P0002629 이명재
 P0016654 나용호
 P0016638 정승호
 P0003361 이현정
 S0016665 대우불교청년회

북한건설후원

P0003916 강정숙
 P0014254 조은희
 P0016016 김예민
 P0001738 김명욱
 P0013980 이광남
 P0003994 박분남
 P0009101 이영욱
 P0002480 이양철
 P0016742 김철현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아프간후원			
P0003919 공 원 란	P0007014 조 대 제	P0013959 김 경 숙	P0013959 신 동 현
P0016740 김 지 성	P0016162 강 영 주	P0013980 이 광 남	P0013980 이 광 남
P0016101 박 경 옥	P0016139 민 보 혜	P0016409 박 영 주	P0016409 박 영 주
P0016739 송 지 웅	P0005204 청 안 사	P0015060 박 주 영	P0015060 박 주 영
P0004942 한 영 태	P0013959 신 동 현	P0015411 김 주 미	P0015411 김 주 미
P0016102 황 미 영	P0013980 이 광 남	P0009775 김 영 순	P0009775 김 영 순
	P0015411 박 영 미	P0009101 이 은 영	P0009101 이 은 영
	P0012399 서 지 현	P0016560 김 은 기	P0016560 김 은 기
	P0014583 손 윤 호		
	P0010204 김 동 진		
	P0009775 김 영 순		
	P0009101 이 은 영		
	P0012599 유 재 한		
	P0012998 이 상 길		

결핵퇴치후원

P0014254 조 은 희	P0010204 김 동 진	P0006062 김 승 진
P0015256 구 선 용	P0009775 김 영 순	P0016162 강 영 주
P0003819 이 명 숙	P0009101 이 은 영	P0016139 민 보 혜
P0015980 권 영 애	P0012599 유 재 한	P0016221 김 홍 금
P0015390 강 대 업	P0012998 이 상 길	P0005204 청 안 사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분들 중 첫 후원금을 내신 분만 신규회원으로 등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물품후원

2006년 2월 26일부터 2006년 4월 25일까지



1. 송하경 브래지어 21점
2. 정재섭 의류 1박스
3. 운문사 화엄반 양말 10 켄슬 3
4. 김종윤(금호상사) 학용품
5. 조성순 어린이운동화 5박스 (200켄레)
6. 김영자 브래지어 277점
7. 지원경 워단 2박스
8. 무주상 각종 학용품 1박스
9. 문경 정토마을 의류 22박스
10. 무주상 연필16다스, 크레파스10개, 세수비누81개
11. 운문사 양말 68켄레
12. (주)이브자리 이불 및 재활용의류 큰 2박스
13. (주)실버텍스 양말 7,669켄레
(총 20,644,000원 상당)
14. 한결약국(장산옥) 키키츠허 3.5그램*100정*9통
15. 양윤순 헬드원정 100정*2개입*30개
16. 운문사 양말 40켄레
17. 신연세약국(김수로) 다보타민큐100정*10통
(총 150,000원 상당)
18. 이순희 엔피 알곡시글리세롤 120통(총 10,200,000원 상당), 엔피키즈갈습 40통(총 7,920,000원 상당)

19. 대웅 제약 코엔자임 Q10*8통(총 320,000원 상당)
20. 유경코미스 박스500개, 슬리퍼 800켄레
21. 모다프래야 워단 2.5톤
22. 한국 제약 협회 (국제약품, 근화 제약, 대원 제약, 동아 제약, 동화약품공업, 보령 제약, 삼일 제약, 일동 제약, 제일약품, 진양 제약, 한국유니온 제약, 한독약품, 환인 제약) 의약품 (총 4,871,285원 상당)

*수자타 나눔장터에 물품 기증하신 분(가나다 순)

강희경, 고연화, 권상례, 권혜숙, 권혜숙, 김 향, 김명숙, 김민정, 김순연, 김애경, 김연숙, 김용애, 김점희, 김태권, 김현숙, 나혜숙, 박민주, 박선화, 박영자, 배명자, 백혜은, 심 금, 양윤덕, 양윤순, 염재희, 오지현, 유명례, 유용자, 윤미옥, 윤태임, 이기혜, 이수진, 이정숙, 이정자, 이종애, 임순옥, 장 미, 장서윤, 장은숙, 장현숙, 장혜진, 정미숙, 정한정, 조정현, 조혜연, 지구촌공생회(김동훈), 채효정, 최미영, 최현순, 홍은실, 황화숙, 무주상 다섯분

특별후원금 명단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특별후원금

강두리영가 500,000원	반소정생일축하금 20,000원	이일중 500,000원	한영태(부모은혜 감사 기금) 100,000원
교사일상에서 깨어있기 718,000원	박동일 100,000원	이향순 96,190원	한영태(북한 어린이 영양식) 60,000원
권순자 100,000원	박병선 100,000원	이효진 100,000원	홍진숙생일축하금 50,000원
김기순 100,000원	박영재 160,000원	임남환 950,001원	황규순 (인도 우물 지원) 100,000원
김대희 100,000원	박세환 생일기념 50,000원	임진희 120,000원	황진효 100,000원
김도형 100,000원	배낙형 200,000원	설지환 50,000원	허진우 100,000원
김봉주 500,000원	배숙자 영가 50,000원	설종환 생일축하금 50,000원	BODYANDSOUL 50,000원
김순해(인도 우물 지원) 1,000,000원	새벽을 여는모임 100,000원	장성호가족 50,000원	무주상 1,000,000원
김정화(인도 도서관 건립기금) 10,000,000원	송경주 25,000원	전지영 100,000원	권광택 \$50
김종복 1,000,000원	송원 100,000원	정선일 50,000원	L.A 이월심 \$3,000
김허승 50,000원	안순자 100,000원	정영미(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지원금) 100,000원	L.A 철호 \$1,000
김현민 100,000원	우궁환 100,000원	정영훈 200,000원	L.A 박애자 \$1,000
김태형(인도우물지원) 200,000원	염기덕 (인도 우물 지원) 100,000원	정윤성 100,000원	L.A 윤소희 \$100
나장145모임 27,000원	유재연 500,000원	조주영 150,000원	L.A 박애자 \$500
노나경 25,000원	육군 5686부대 430,000원	천정숙 50,000원	
대우불교청년회 300,000원	이동한 100,000,000원	최근대 100,000원	
민명숙 200,000원	이석진님 생일축하금 100,000원	최세열(시아머니생일축하금) 100,000원	
	이승규 300,000원	한동우 20,000원	
	이승희 50,000원	한선우 30,000원	

결핵퇴치후원금

강 대 업 150,000원	오 인 숙 1,500,000원	조 대 제 150,000원	황경표 영가 150,000원
박 중 식 150,000원	유 재 한 300,000원	조 협 150,000원	
서 지 현 150,000원	이 상 길 150,000원	최 상 노 150,000원	
손 윤 호 150,000원	정 판 봉 50,000원	추 병 우 1,500,000원	

필리핀산사태 긴급구호금

강 희 출 50,000원	삼 보 사 500,000원	이 동 우 10,000원	최 세 열 30,000원
박 병 선 50,000원	서 복 회 10,000원	이 상 학 10,000원	황 태 양 10,000원
박 정 명 50,000원	윤 영 화 20,000원	이 영 조 10,000원	

북한비료보내기

공 원 란 100,000원	김 칠 현 100,000원	이 동 근 20,000원	황 미 영 10,000원
김 지 성 10,000원	박 경 옥 10,000원	이 양 옥 30,000원	강 춘 선 50,000원
김 일 윤 50,000원	송 지 용 30,000원	한 영 태 10,000원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명단 확인 바랍니다.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입금은행명 순)

*2회이상 입금하신 분은 1회 내역만 실었습니다.

2/15	강명순	국민	2/27	김홍규	국민	2/27	여정애	우체국	2/7	전우정	국민
2/9	강성구	국민	3/4	남윤지	국민	2/20	연미경	우체국	2/7	정순임	농협
2/27	강성욱	국민	2/10	노미선	국민	3/1	오종석	국민	2/3	정은선	농협
2/27	강세환	조흥	2/10	노재성	농협	2/27	유상열	국민	2/13	정은지	국민
2/9	강정순	국민	2/28	도재권	국민	2/20	유상혁	국민	3/2	정지원	국민
2/13	강해수	농협	2/28	류은화	하나	3/17	유숙이	국민	2/21	정진숙	우리
2/6	강현주	농협	2/14	무주상	국민	3/20	유혜선	농협	2/15	정현아	우체국
2/1	곽형길	농협	2/13	문상인	국민	2/27	유희연	조흥	2/20	정혜선	우체국
2/20	권대현	외환	2/27	문희경	농협	2/20	윤길순	농협	3/13	정혜정	농협
3/28	권연수	국민	2/6	박경화	국민	3/17	윤병욱	국민	2/15	조명순	우체국
2/28	김갑순	농협	2/20	박낙범	우체국	2/28	윤정희	조흥	2/28	조영순	농협
2/9	김계순	국민	2/1	박상아	농협	2/1	이경선	농협	2/8	조현정	조흥
2/6	김기환	농협	3/18	박성서	국민	2/28	이경열	조흥	2/27	주용운	기업
2/1	김도영	외환	2/16	박순경	우체국	2/1	이남숙	국민	2/27	주은정	우체국
2/1	김도현	외환	2/27	박옥순	제일	2/27	이만덕	하나	2/20	지보사	국민
2/28	김동숙	농협	2/27	박정현	국민	3/3	이병순	우체국	3/28	직지사금강회	국민
2/7	김문기	외환	2/27	백재석	외환	2/27	이부건	국민	3/15	차윤실	국민
2/20	김미경	농협	2/7	백경희	농협	2/22	이성욱	농협	2/14	창정초교612	우체국
2/28	김민정	국민	2/3	백을순	농협	3/20	이슬한방울0	국민	2/21	최경순	농협
2/20	김선미	농협	2/21	변성운	농협	2/25	이쌍례	국민	2/10	최명임	조흥
2/1	김선옥	농협	2/28	부채남감사합니다	국민	2/7	이연숙	우체국	3/10	최영숙	조흥
3/21	김성훈	조흥	3/27	성불하세요	국민	3/30	이정혜	국민	2/2	최지영	국민
2/28	김세준	우리	2/24	성정사	농협	2/21	이주영	국민	2/28	최태연	국민
2/15	김애숙	국민	2/21	손광희	조흥	3/3	이현미	우체국	2/28	최한운	국민
2/21	김영찬	조흥	3/10	손소호	외환	2/6	이현정	국민	2/7	하효남	조흥
3/6	김용수	농협	3/31	손초순	농협	2/10	이화순	농협	2/20	한만석	농협
3/3	김인필	국민	3/7	송경애	농협	2/1	이효정	조흥	3/3	한명숙	국민
2/9	김재화	농협	2/27	송민철	국민	2/6	임소영	조흥	2/27	한임경	기업
2/15	김점순	농협	2/16	송진숙	농협	3/22	임소현	농협	2/22	허태운	제일
2/27	김정민	국민	2/20	신동호	국민	2/28	임영해	농협	2/15	혜륜	농협
2/27	김정석	국민	3/3	신순영	국민	2/23	임재찬	농협	2/27	홍언년	국민
3/29	김정순	국민	2/28	신현정	조흥	2/28	임창숙	농협	2/2	홍지영	국민
2/16	김정현	국민	2/10	심재홍	우리	2/6	장도연	국민	2/21	황정원	국민
2/3	김종애	국민	2/17	심정섭	국민	3/4	장병대	농협	2/27	황현심	국민
2/24	김지현	농협	2/13	심지연	우리	2/10	장아연	우체국	2/20	황현주	하나
3/7	김태순	외환	3/27	양승희700706	국민	2/28	장진숙	조흥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만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할 것입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우리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조흥은행	348-01-111624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신한은행	260-05-011808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체국	013755-01-00366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담당자 : 정한정)